

클래식 명곡 산책 - 6 - 비올라

언뜻 보면 바이올린과 구분이 되지 않는 악기, 비올라.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약간 두껍고 길며, 5도 낮은 음정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에 비유하면 알토 성부를 담당하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비올라를 알토(alto)라고 부릅니다. 그렇다 보니 화려한 바이올린에 가려질 수밖에 없었고, 작곡가들도 비올라를 위해 많은 곡을 쓰지 않았습니니다. 심지어 음색이 명료하지 않고 어두워서 대중의 취향에도 맞지 않았죠. 그래서 실내악이나 관현악의 한 파트를 담당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면서 음습한 음색이 오히려 개성적인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많은 작곡가들이 비올라 독주곡이나 협주곡 등으로 비올라의 비중을 크게 높여놓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놓쳐왔던 비올라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소외된 존재로부터 발견한 뜻밖의 매력에 풍덩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소개해드리는 음악들을 유튜브 채널로 만들어 하나의 QR 코드로 제공합니다. 매곡 번거롭게 확인하던 것을 이제 단 한 번의 QR 코드 확인으로 감상하세요!



그림 1.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 출처 : commons.wikimedia.org



그림 2. 미하엘 하이든 / 출처 : commons.wikimedia.org

한 이중주 여섯 곡을 위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네 곡을 작곡한 이후 병으로 작곡이 중단되어 고심하고 있었죠. 마침 아내 콘스탄체를 아버지와 누나에게 소개하기 위해 잘츠부르크를 방문했던 모차르트는 미하엘 하이든의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여러 편지에서 약 20년이나 연상인 그에게 버릇없이 굴기는 했지만, 어린 시절 그의 음악을 공부하는 등 모차르트는 그를 존경하고 있었죠. 모차르트는 미하엘 하이든이 진행하지 못한 나머지 두 곡을 직접 작곡하여 위촉을 완성해주었습니다. 그 곡이 '이중주 1번 G장조, K423'와 '이중주 2번 B♭장조, K424'로, 이러한 이유로 이 두 곡은 미하엘 하이든의 스타일로 작곡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미하엘의 이중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모차르트의 작품으로서 그의 음악언어가 뿌리 깊이 있지만, 모차르트의 꼼꼼한 작업으로 콜로레도 대주교는 이렇게 완성된 여섯 곡의 이중주 세트를 보고 모차르트의 작품을 분간하지 못했다고 하죠. 이 곡을 들으면서 두 악기의 음색을 비교해보세요.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91)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두 개의 이중주 Two Duos for violin and viola (1783)

1783년, '교향곡의 아버지' 요제프 하이든의 동생이자 잘츠부르크에서 음악감독을 맡고 있던 미하엘 하이든(Michael Haydn, 1737~1806)은 콜로레도 대주교로부터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

♣ 루트비히 판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두 개의 오블리가토 안경을 쓴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이중주
Duo for viola and cello with two obligato eyeglasses,
WoO 32

베토벤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안경 이중주>는 1794년부터 1800년까지 사용되었던 스케치용 악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796년이나 1797년 즈음에 작곡된 것으로 보이지만, 100년이나 더 지난 1912년이 되어서야 출판되었죠. <안경 이중주>라는 재밌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베토벤의 전기 작가인 알렉산더 윌록 타이어(Alexander Wheelock Tayer, 1817~1897)는 그의 친구였던 니콜라우스 츠메스칼 폰 도마노베츠 남작을 위해 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츠메스칼은 베토벤이 빈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만났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가리 관서의 비서로 일했으며, 일생동안 베토벤의 친구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베토벤에게 깃털과 와인을 제공했으며, 휴가를 함께 보내기도 했었고, 숙소를 알선하고 출판을 위한 편집에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모으는 등 베토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둘이 친분을 유지했던 것은 츠메스칼이 상당한 실력을 갖춘 아마추어 첼로 연주자이자 모차르트에게서 배운 작곡가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베토벤은 편지에서 츠메스칼을 ‘음악 백작’이라고 호칭하였으며, 여기에 ‘가장 사랑하는 음악 백작’, ‘가장 탁월한 음악 백작’ 등의 수식어들을 붙여 친근감 있게 표시했습니다. 타이어는 한 편지에 쓴 “저는 당신의 약한 시력을 위해 극진히 도와드려야 합니다.”라는 말이 이 곡과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문장으로부터 츠메스칼이 베토벤에게 안경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유추하는데, 베토벤이 두 안경잡이가 함께 연주하기 위해 이중주곡을 쓰고 <안경 이중주>라는 재밌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것이죠. 바이올린을 잘 다루었던 베토벤이 자신의 악기로 굳이 비올라를 선택한 것은 아마추어로서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사실 <안경 이중주>는 완성

된 작품이 아닙니다. 알레그로와 미뉴에토의 두 악장은 완전한 상태지만, 느린 악장은 약간의 스케치만 남아있을 뿐이죠. 첫 악장 알레그로는 비올라의 힘찬 주제로 시작하며, 곧 첼로가 아르페지오 반주로 등장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제와 반주를 두 악기가 주고받으며 진행하며, 손가락 연주(피치카토)와 활 연주(아르코)도 교대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표현도 잊지 않습니다. 온화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미뉴에토는 프레이즈들이 화성적으로 구성되며 두 악기가 대위적으로 진행합니다.

♣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1833~1897)
두 개의 비올라 소나타 Zwei Sonaten für Klavier und Viola, op. 120 (1894)

브람스는 독일 후기 낭만의 거장으로, 그의 음악은 가을 녀이 연상되는 서정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곡가죠. 이렇게 남다른 감수성을 지닌 그는 61세였던 1894년에 여러 가까운 지인들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동요된 브람스는 <49개의 독일 민요집>을 완성하고 출판사에 보내면서 은퇴 결심을 알렸죠. “민요집 마지막 곡과 저의 작품1이 같은 것은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과 같습니다.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상징이죠.”

하지만 브람스가 극찬을 받지 않았던 리하르트 뭉펠트의 클라리넷은 마법과 같이 그의 결심을 돌려놓았습니다. 은퇴 선언이 무색하게도 그해 여름에 오스트리아 바트 이슬의 여름 휴양지에서 브람스는 <두 개의 클라리넷 소나타, 작품 120>을 완성하고, “진심

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악기의 대가, 리하르트 뭉펠트 씨에게”라고 헌정사를 썼던 것이죠. 브람스는 이 “특별히 뭉펠트를 위한 피아노가 딸린 두 개의 우수한 소나타”를 1894년 9월 베르히스가덴에 위치한 마이닝겐 공의 여동생 자택에서 뭉펠트와 함께 초연했습니다. 둘은 이듬해 1월 빈 연주에서 큰 성공을 거뒀으며, 유럽 투어에서의 레퍼토리로



그림 3. 루트비히 판 베토벤 / 출처 : en.wikipedia.org



그림 4. 요하네스 브람스 / 출처 : marveldcinematicuniverse.wikia.com

자주 연주했습니다.

브람스는 이 두 소나타들을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해 직접 편곡했는데, 특히 비올라 편곡은 낭만시대 비올라 레퍼토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클라리넷 원곡만큼이나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이 두 소나타는 만년의 완숙한 작품으로서 안정된 구도를 갖고 있으며, 내면적인 감성을 진지하고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전체에 깃들어있는 차분하고 염세적인 분위기는 여러 죽음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보이기도 하죠. 브람스의 전기 작가인 칼 가이링거는 이 곡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느 정도 건조하고 불안정한 음색, 가끔 강력한 악센트나 심지어 기쁨을 만드는 애절한 슬픔, 모든 악장에서의 완벽한 형식에서도 감탄하게 된다.”

❖ 파울 힌데미트 Paul Hindemith (1895~1963)

비올라 독주를 위한 소나타 Sonate für Viola Solo, op. 25-1 (1922)

힌데미트는 본래 바이올리니스트로 음악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비올리스트로 전향하여 1921년에 현대음악만을 연주하는 아마르 사중주단을 조직했습니다. 이 단체는 유럽을 순회하며 수많은 곡을 초연하는 등 매우 성공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작곡가로서의 힌데미트가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아마르 사중주단을 조직하고 1년 후인 1922년이었습니다. 잘츠부르크에서 열린 국제현대음악협회(ISCM) 페스티벌에서 연주된 그의 실내악 작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쇼트사와 악보 출판 계약까지 맺게 된 것이죠. 이때의 성공은 1923년 ‘도나우에싱엔 음악의 날’(Donaueschinger Musiktage)의 조직위원 위촉으로 이어져 힌데미트의 영향력은 급속히 신장되었습니다.

힌데미트는 고전적인 형식을 이용하고, 작곡을 수공예와 같은 장인의 기술로 보았습니다. 공연을 하루 앞두고 연주 장소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 공연에서 연주할 <비올라 독주 소나타, Op. 25, No. 1>(1922)의 두 악장을 작곡하고 거의 초견으로 무대에서 연주했다는 일화는 수공예적으로 ‘일’을 하는 힌데미트의 작곡 스타일을 잘 말해



그림 5. 파울 힌데미트 / 출처 : www.foundagrave.com

줍니다. 이러한 특징은 인간적인 감정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의 묘사를 거부하고, 소리 자체만을 중시하는 절대음악적인 가치를 중요시했던 음악관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반낭만적 성향은 아름다움보다는 거칠고 표현적인 사운드를 요구했으며, 절대음악적 성향은 형식미의 추구로 이어져 그가 견고 있었던 신고전주의적인 특징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었습니다. <비올라 독주 소나타, Op. 25 No. 1>의 3악장은 ‘음을 아름답게 내는 것은 부차적인 사항임’이라고 적어 그 의도를 확실히 했죠.

적극적인 불협화음의 사용과 불명확한 조성은 반낭만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으뜸음이 모든 12음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화음에 비화성음이 추가되기도 하고 반음 차이의 두 화음을 동시에 소리 내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화성은 복조성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작곡가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며, 청각적으로는 타악적인 리듬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게 들립니다.

❖ 윌리엄 월튼 William Walton (1902~1983)

비올라 협주곡 Viola Concerto (1929)

20세기 영국의 로맨티스트 윌리엄 월튼은 그의 걸출한 교향곡과 함께 뛰어난 <비올라 협주곡>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월튼이 27세였던 1929년에 작곡된 <비올라 협주곡>은 월튼의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자, 그의 곡 중에서 가장 자주 연주되는 작품 중 하나죠. 이 곡은 지휘자 토마스 비첨 경의 제안으로 당시 비올라 거장이었던 리오넬 터티스(Lionel Tertis, 1876~1975)를 위해 작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도 많은 위대한 작품이 겪었던 관문을 통과해야 했죠. 터티스는 이 곡의 악보를 보자마자 연주를 거절하고 악보를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터티스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초연을 해주지 않은 곡 중에 월튼의 뛰어난 협주곡이 있었다. 작곡가가 내게 초연을 부탁했을 때 거절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때 나는 좋은 상태가 아니기는 했지만, 내가 월튼의 스타일을 기본 좋게 받아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의 음악 언어에 들어있는 새로운 요소들은, 지금은 음악의 흐름이 매우 논리적이고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설득력 있게 보이지 않았다.”

이때 월튼은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이자 뛰어난 비올리스트였던 파울 힌데미트(Paul Hindemith, 1895~1963)를 떠올렸습니다. 월튼이 <비올라 협주곡>을 쓰면서 힌데미트의 비올라 협주곡인 <실내음악 5번>의 영향을 받았기에, 힌데미트는 초연자로서 최



그림 6. 윌리엄 월튼 / 출처 : www.thefamouspeople.com



그림 7. 리오넬 터티스 / 출처 : www.thestrad.com

적의 인물이었죠. 힌데미트는 이 곡의 초연을 흔쾌히 수락했으며, 1929년 10월 3일에 월튼의 지휘로 프롬스에서 초연되었습니다. 맨체스터 가디언 지에서 평론가 에릭 블룸은 근래에 작곡된 최고의 협주곡이라고 평했으며, 월튼을 타고난 천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터티스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1932년에 우스터에서 연주했죠. 월튼은 이 연주회에서 유명한 <사랑의 인사>의 작곡자이자 그가 존경해마지 않던 엘가(Edward Elgar, 1857~1934)를 만났는데, 엘가는 이 곡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군요.

♣ 벤저민 브리튼 Benjamin Britten (1913~1976)

눈물 Lachrymae, Op. 48 (1950)

20세기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를 꼽는다면 1순위는 분명 벤저민 브리튼이 오를 것입니다. 그는 유럽대륙에서 벌어지는 실



그림 8. 벤자민 브리튼 / 출처 : digital.vpr.net

험에 거리를 두고 영국의 전통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현대적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브리튼은 수많은 오리지널 작품을 쓰면서도 영국의 옛 작곡가들의 음악을 편곡하거나 변주곡 등을 쓰는 등 옛 노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음악의 계승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리튼이 관심을 가졌던 옛 작곡가 중에는 영국의 초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존 다울랜드(John Dowland, 1563~1626)가 있습니다. 브리튼은 1605년에 출판된 다울랜드의 작품집 '눈물'(Lachrymae) 중 <If my complaints passions move>를 주제로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해 <눈물>(1950)을 작곡했습니다. 브리튼은 본래 어렸을 때부터 비올라를 연주해왔는데, 오랜만에 자신의 악기인 비올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리오넬 터티스를 잇는 영국의 스타비올리스트 윌리엄 프리모즈의 연주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튼의 <눈물>은 비올라의 높은 연주 수준을 요구하며 다양한 화음으로 채색되어있습니다. 불안한 분위기에서 비올라의 상성하는 음형으로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화음은 이미 처음부터 조성에 관심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선율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지만 섬세하고 내면적인 방향을 유지합니다. 중반 이후 열정을 토로하며 고조되고, 마지막에 주제를 제시하며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비올라 특유의 어두운 음색이 더해져 '눈물'이라는 주제에 걸맞은 어두움이 있죠.

브리튼이 <눈물>의 부제로 적은 '존 다울랜드의 노래에 대한 반영'에서 '변주'(variations) 대신 '반영'(reflectio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주제를 단편으로 나누고 재구성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부분에서 다울랜드의 다른 작품 <Flow my tears>가 난데없이 등장하는 것도 변주곡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 이죠. 이 두 주제가 얹히면서 음악은 더욱 밀도 있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변주 후 마지막에 온전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